

진안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무주군,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31일까지 집중기간 지정... 주민 편의 위해 10개면 보건지소서 실시

진안군은 6~31일까지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10개면 보건지소서에서도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군은 연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 변이로 지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결정했다.

또한 전북도의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6일 0시 기준 1.11을 기록하며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 지역민들은 관내 10개 보건지소서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 접종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천·안천·상전·부귀 보건지소(매주 화, 수요일)와 용담·동향·정천·성수 보건지소(매주 목, 금요일), 마령 보건지소(매주 수, 금요일) 백운보건지소(매주 화, 목요일)로 나눠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건지소 접종 첫 주인 6일~10일까지는 보건지소별로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지소에 확인 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진행되는 추가 접종은 대상자별 중증과 사망 위험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자별로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실시한다. 그러나 해외 출국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피치 못할 개인 사정과 단체접종이 필요한 감염취약시설 등은 권고 접종 간격보다 이른 시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자는 권장 접종 기간인 4개월보다 1개월 빨리 조기 접종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층도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조기 접종이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현안사업 특교세 20억원 추가 확보

전춘성 군수, 행안부 장관 면담 등 예산확보 노력 결실

진안군은 6일 '잠정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에 재난안전 및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마~원반월간 도로 확포장공사(5억원), △잠정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8억원), △후기막천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7억원) 등 3개 사업 20억원이다.

이러한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춘성



전춘성 군수

군수가 지난 10월 직접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행안부 장관(전해철)과 면담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과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의 재정 부담은 덜고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금마~원반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 7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로 주민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공사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잠정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부귀 잠정지구, 상전 후기막지구 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 상존 구간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14억을 확보한 바 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소통공간' 개관

장수군은 지난 3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거점 공간인 '청년소통공간' 개관식 및 2021년 장수 청년 페스타 wake up 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 청년소통공간은 지난 4월 22일 도 공모사업인 '청년마루' 조성사업에 선정돼 장수군 귀농귀촌센터 2층에 조성됐으며 내부공간은 소통공간, 회의 겸 프로그램 운영 용도 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장수군 청년소통공간은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청년 공간을 조성했으며, 도에서는 청년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관식 이후에는 2021년 장수 청년 페스타 wake up 행사를 진행해 지난 10월에 공개 모집된 장수군 청년 네트워크 협의회 발대식, 청년 정책 강의, 무드등 제작, 설문조사, 토크콘서트 및 축하공연을 함께 진행해 청년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 종이 등)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해 참여했으며, QR코드 체크인과 체온측정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장영수 군수는 "청년소통공간 개관과 함께 청년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제감도 높은 정책 및 사업, 지역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업 경쟁력 향상·농가소득 증대 도모

무주군이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과 마을경업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전라북도 2022년도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선정된 2개 업체에 2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업체가 1·2·3차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업체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마을경업체 경쟁력강화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무주군은 오는 2022년 1월,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 5개소를 선정하고 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촌활력도 이종현 과장은 "6차산업화 맞춤형 지원으로 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무주반딧불축제 어린이 생생교육'을 운영한다.

무주반딧불축제 어린이 생생교육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초등학교 1~3학년 420여명 대상 실시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진용훈)는 오는 20일까지 '무주반딧불축제 어린이 생생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주민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어린이들에게도 동様に 맞는 사전 교육과 체험을 통해 축제의 의미를 알리려는 취지에서다.

생생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42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6일 무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지역 내 10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지는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

반딧불이 영상을 시청하고 무주의 자연과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교구를 활용해 등을 제작해보는 체험으로 진행되는 생생교육은 반딧불이와 무주 반딧불축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어린이들은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반디취침등과 반디생태무드등을 직접 제작하면서 반딧불이 체험 놀이를 통한 꿈과 희망을 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은 "축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야만 지속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교육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반딧불이와 축제가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알고 향후에는 축제를 이끄는 주역들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2021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축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방 방제 시범사업 평가회

무주군은 6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에서 사과농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딧불이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는 올해 무주군이 추진했던 사과 병해충·예찰 방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해 2022년 영농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평가회에서는 △2021년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농가별 농약사용 등 방제력 분석결과, △올해 과실 품질 및 생산량, 판매 가격 등 동향을 공유했다.

군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방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6개 읍·면 130농가를 대상으로 1억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대표 장일)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병해충 교육과 약제공급과 병해충 예찰활동을 실시해 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총력

진안군은 6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2곳과 방역취약 2농가 출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차단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와 전실이 없는 축사의 부출입구 폐쇄, 방사사육 금지, 출입차량 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4단계 소독시행, 입식 및 출하 시 정밀 검사후 이동승인서 발급 등 강화된 차단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포획, 바이러스 검사, 내·외 부울타리 설치,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관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1만2,300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